

NEW PRODUCT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



편리한 야외용 현미경
보이지 않는 집
빠르고 싼 프로세서
범인을 엿어 맨다
음식찌꺼기 처리기
첨단 보청장치
야간촬영용 캠코더
예술적인 스피커
수직형 스테이플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하대
물집막는 테프론 양말
옹골찬 음향시스템
'작은 거인'
카메라 같은 캠코더
프로용의 디지털 카메라
올림픽통신용 손목전화

편리한 야외용 현미경

니콘사의 '네이처스코프 20X' 휴대용 현미경은 무게가 23온스(약 6백52g)밖에 안되어 야외작업을 하기가 쉽다. 탈착식 판은 고체건본용 검경대(檢鏡臺)로 사용할 수 있고 반대편의 내장된 컵은 액체샘플을 간직한다. 이 현미경은 50mm 밖의 대상물 관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값은 6백72달러.

제작소 : Nikon Inquiry Response Center, 28 Brandywine Dr., Deer Park, NY 11729 U. 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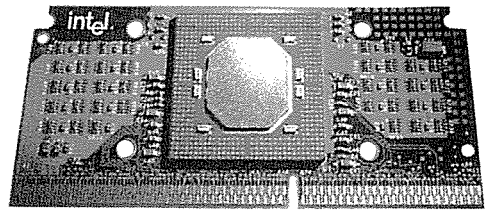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집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 세군도시의 실험미술가이며 설계자인 마이클 잔첸은 2천입방피트의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외부전면을 이루는 일련의 평판 가스-플라즈마 모니터는 집의 주변환경을 실시간 비디오로 보여 주면서 전면에서는 이 집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잔첸은 미래의 주택건설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집을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의 태평양안안 고속도로 근처에 지었다.

빠르고 싼 프로세서

PC값이 떨어져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1998년 여름 인텔은 PC메이커들에게 2가지의 새로운 저가의 펜티엄II 프로세서를 공급할 계획이다. '코빙턴'이라는 이름의 첫번째 프로세서는 내장된 메모리가 없는 266MHz형인데 주로 1천달러 이하의 PC에 사용된다. '멘도시노'라는 이름의 두번째 프로세서는 300MHz로 운용되는데 일부의 내장메모리를 갖고 1천~1천5백달러의 PC용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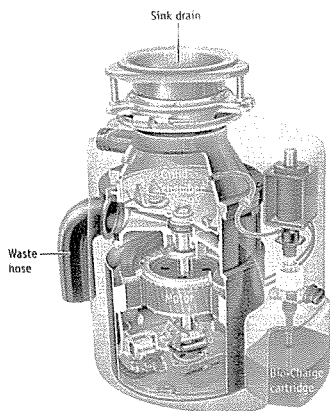
범인을 엮어 맨다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설계된 발사식 망이 개발되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삼 소재의 포스터 밀러사가 제작한 '비살상식 엮힘기술' 시스템은 수류탄을 담은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데 재래식 최루가스 수류탄발사기로 발사된다. 지름 4.8m의 플라스틱 섬유망은 발사기로부터 2.4m 거리에서 열려 6m 거리에서 착지하여 범죄자를 망 안에 가둔다. 지금까지 1백50회를 실험한 결과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음식찌꺼기 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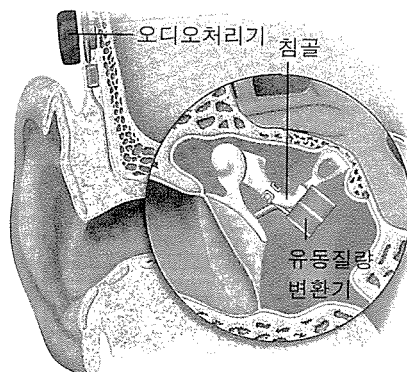
인싱크 이레이터사의 부패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로 부패조가 막힐 걱정이 없다. 이 찌꺼기처리시스템에는 효소생산 미생물을 분쇄실로 주입하는 용기가 달려 있다. 이 미생물은 음식물과 그밖의 폐기물을 소화하여 침전물을 줄이고 썩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한개에 9달러짜리 바이오차지용기의 수명은 약 4개월이다. 값은 1백89달러.



제작소 : In-Sink-Erator, 4700 21st St., Racine WI 53406 U. S. A.

침단 보청장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제이시 소재 심포닉스 디바이스사가 개발한 최신형 보청장치 '바이브란트 사운드브리지'의 핵심은 쌀 한톨의 반 크기인 '유동질량변환장치'다. 이 변환기는 수술을 통해 침골(귀청 속에 있는 세계의 청골의 하나)에 정착제로 부착한다. 변환기 속의 자석과 코일은 이 작은 뼈를 함께 진동시켜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진동을 만들어 낸다. 한편 귀 뒤쪽 머리털 속에 감춰진 오디오프로세서가 들어오는 소리를 처리하면서 뼈의 진동 속도와 강도를 제어한다.



야간촬영용 캠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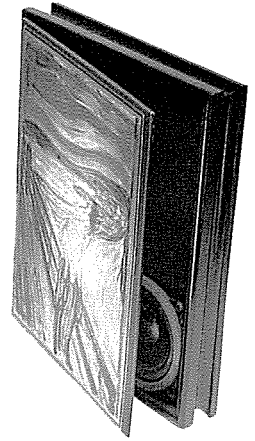
소니의 '나이트샷'을 장비한 '핸디캠 비전 시리즈' 캠코더를 가지면 철출같은 어두운 밤에도 촬영할 수 있다. 적외선기술을 이용하여 3m 밖의 영상을 잡을 수 있다. 이밖에도 TV와 무선연결을 할 수 있고 1시간짜리 리튬이온배터리는 15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 값은 7백99달러~1천3백99달러



예술적인 스피커

'게코 플레이트' 스피커는 인쇄된 격자창을 가져 그림처럼 아름답다. 두께가 2인치 이하여서 벽에 걸면 틀에 끼운 미술작품처럼 보인다. 값은 크기(9×11인치, 11×14인치, 18×24인치)에 따라 5백달러~2천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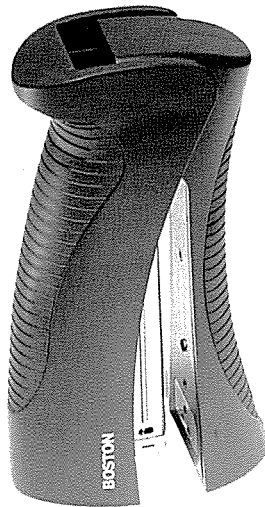
제작소 : Noise Cancellation Technologies, One Dock St., Suite 300, Stamford CT 06902 U. S. A.



수직형 스테이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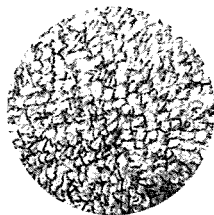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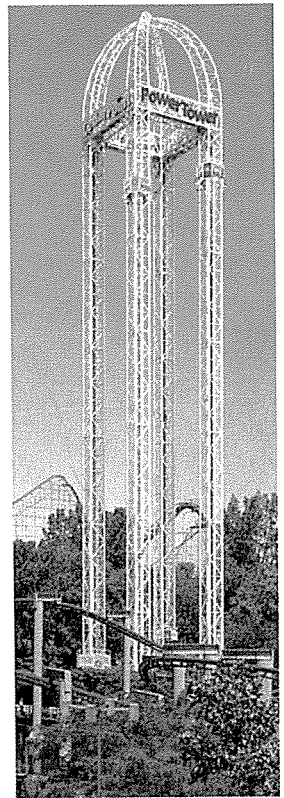
스테이플러(호치키스)는 사용할 때 수평방향으로 잡는다. 그러나 헌트 매뉴팩처링사는 이번에 수직형의 '보스턴 스탠드업' 스테이플러를 만들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디럭스 모델은 내장식 스테이플러 제거기를 가졌다. 값은 15달러~25달러.

제작소 : Hunt Manufacturing, One Commerce Sq., 2005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3 U. S. A.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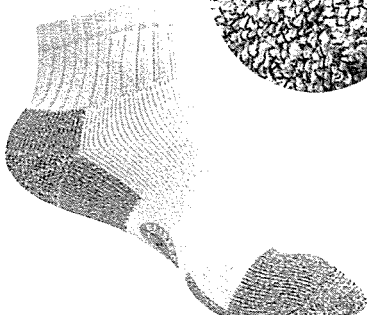
72m의 낙하대를 가진 90m 높이의 파워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하장치다. 미국 오하이오주 샌더스키시 소재 시더포인트에서 1998년 5월 개장한 파워 타워는 탑승객을 수직으로 싹쓸리기 위해 300파운드(약 136kg)의 압축공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탑승객은 우주연락선 발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맞먹는 중력을 받게 된다. 몇초 뒤에 탑승객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지상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한다.



물집막는 테프론 양말

'블리스터 가드' 양말은 발에 달라붙지 않아 발에 물집과 못이 박히는 것을 막는다. 이 양말에는 뒤축, 발가락, 바닥 속에 미끈미끈한 듀폰의 테프론섬유를 짜넣었다. 그래서 테프론은 양말이 발 위로 미끄러지게 하여 발과 구두사이의 마찰을 완전히 제거한다. 값은 한 켤레에 5달러~1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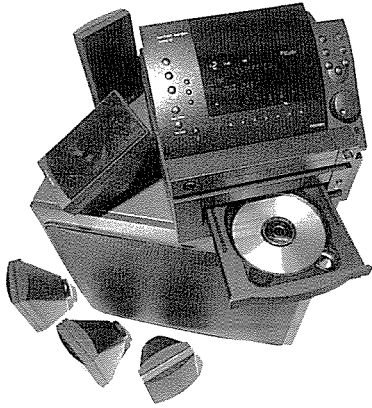
제작소 : PTFE, 125 Melbourne Dr., Athens GA 30604 U. S. A.



응골찬 음향시스템

‘하몬/카돈 페스티벌 80’은 작고 우아한 패키지에 수용된 돌비 서라운드 음향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5개의 스피커용 앰프는 서브우퍼(125Hz 이하의 초저음만을 재생하는 확성기 콤포넌트) 캐비닛 속에 내장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는 7CD체인저와 노래제목 및 그밖의 방송된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 정보를 알려주는 AM/FM 라디오가 포함된다. 값은 2천1백99달러.

제작소 : Harmon/Kardon, 250 Crossways Park Dr., Woodbury NY 11797 U. S. A.



‘작은 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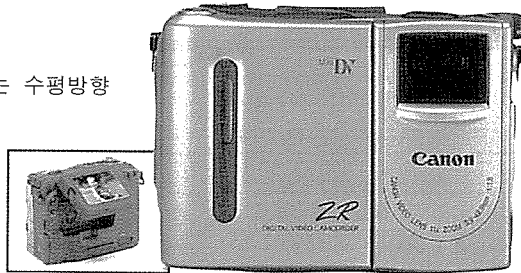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어드밴트라’ 메시지 조직장치는 문자/숫자 호출기와 전자조직기를 겸한다. 손바닥 크기의 이 장치는 들어오는 숫자를 주소록의 명단과 대조하여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또 PC링크 케이블을 이용하면 데스크탑 컴퓨터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값은 2백50달러.



카메라 같은 캠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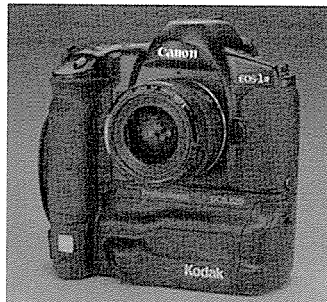
‘타이니 캐논 ZR’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는 수평방향의 4와11/16×3과3/8×2와3/16인치 크기로서 스틸(정지용) 카메라를 더 닮았다. 19온스(약 538g) 무게의 이 캠코더의 2.5인치 컬러 LCD는 돌출하여 1백80도 회전할 수 있다. 값은 1천9백99달러.

제작소 : Canon U. S. A. One Canon Plaza, Lake Success NY 10042 U. S. A.



프로용의 디지털 카메라

캐논과 코닥은 공동노력으로 가장 앞선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를 제작했다. 이름만 다를 뿐 ‘캐논 EOS D 2000’과 ‘코닥 DCS 520’은 어느 것이든 코닥의 2메가픽셀(1,736×1,160픽셀 해상도)의 CCD센서와 캐논의 EOS렌즈를 조합한 것이다. 이 카메라는 또 1.8인치의 컬러 LCD스크린을 가졌다. 값은 1만4천9백95달러.



올림픽통신용 손목전화

지난 겨울 일본에서 개최된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사용했던 손목전화인 ‘웨어러블 커뮤니케이션’은 1.6온스(약 45.34g) 무게밖에 안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로 60분간이나 통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산계획은 없다.

